육체세례(?)와 성령세례

(눅3:15-20)

15.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16.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8. ○또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19. 분봉 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20.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육체세례와 성령세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요한의 사역이 간단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나고 바로 그 다음 구절부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심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로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그런 중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차에 세례요한의 용기 있는 선포와 회개의 촉구 앞에서 혹시 세례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분명히 밝히는 과정이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은 나와 엄격한 차별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 되심이 뭐냐 하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본문 속에서 세례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성령세례와 자기가 준다고 하는 물세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이걸 한번 우리가 알아본다는 겁니다.
성령세례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례라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세례가 무엇인지, 특별히 물세례와 비교해서 성령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과연 성령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성령세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런 말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없습니다마는 '육체세례'라는 말을 한번 해봅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체세례라는 말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요리문답에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첫째 부분은 물에 빠져 죽는 죽음을 말하고, 둘째 부분은 빠져서 죽은 물에서부터 끄집어내서 살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죽음과 다시 살아남, 이 두 부분, 중생의 의미로 세례가 설명이 됩니다.
이것은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이고 그 뿌리를 살펴보면 바울에게서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결국은 세례요한에게서도 같은 의미로 쓰였을 것입니다.
세례라는 건 죽은 것이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육체세례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나는 육체 자체는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고 그 영혼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영혼의 삶의 방식입니다,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육체가 죽은 다음에도 입관예배에 가보면 그대로 육체는 남아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변하지 않고 남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과 다른 것은 몸과 영혼이 결별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육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육체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 마음, 자아의식이 있는 마음을 인격이라고 말했어요, 자아의식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마음이 인격입니다.
이 인격이 육체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죽고 태어나는 것이라면 어머니 뱃속을 통하여 육체를 입음으로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육체세례를 받는 거예요.

육체세례를 받아서 내 마음이 자아의식이 있는 '나'라는 인격이 육체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육체를 통해 이 세상을 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봅니다, 세상을 듣습니다, 세상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원을 갖습니다.
점점 육체세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세상 충만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가가 사업에 몰두해 있다, 이거 세상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온통 자식 걱정으로 가득 차있다, 자식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육체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세상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세례를 받아서 육체를 통하여 접하는 이 세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세상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 우리가 말하는 자연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이 세상에 생겨나면서 그런 자연인의 상태가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으로 충만해서 사는 것, 육체세례 받은 덕분에, 어머니의 자궁에서 죽고 이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육체세례를 받음으로 육체를 통하여 이 세상을 접하게 되고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버린 것, 그래서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이 생기고 이루고 싶은 것이 생긴 이 세상이 충만한 상태,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겁니다.
꼭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이 세상이 충만해진 상태,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인류에게 베푸는 것이 물세례라는 겁니다.

물세례가 뭡니까?

물세례는 한번 세례식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세례의 의미는 날마다 우리에게 되새겨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과 루터는 Daily Baptism 이라고 합니다.

그 Daily Baptism이라는 말이 바로 사도바울의 날마다 죽는다는 말에서부터 연관되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세례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 물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주 금요일에 말씀을 함께 나눈 바대로 이 세상을 등지겠다는 나의 결심이 물세례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나는 육체가 아닌데 육체세례를 받음으로써 육체와 연결이 돼버리고 육체에 구속되어버린 상태에서 육체로 접하는 이 세상을 내 마음이 충만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 세상에 마음이 닿아서 세상 생각하고, 세상 걱정하고, 세상에서 소원하고, 세상에서 갖고 싶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마음이 의식적으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가겠다!'

이 의미가 바로 물세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물에 잠겨 침례가 되든지 아니면 물을 튀겨서 상징적으로 의미하든지 간에 물세례의 의미는 바로 세상을 등지겠다는 내 인격적 결단의 표현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물세례를 받고 났는데도 내 마음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세상 생각하고 세상 걱정하고, 세상 일이 딴 겁니까? 내 가정일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세상이고, 내 애인이 세상이고, 교회부흥도 세상 문제이고…

목회를 대단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것조차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세상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물세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세례 다음에 성령세례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세례는 뭡니까?

육체세례와 비교해보면 알아요.

'나'라고 하는 마음, '나'라는 인격이 육체세례를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일이 뭐였습니까?

이 세상이 나의 현실이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내 마음의 현실이 되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내 마음이 이 세상이라는 사실들을, 내가 가정이 있다든지, 내가 대한민국에 산다든지, 서울에 산다든지 미국에 산다든지 하는 사실이 나의 현실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육체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세례가 주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이 천국을 현실로 느끼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육체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하나님과 천군천사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이 내 마음에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얘깁니다.

교리가 아니고 천국이 설교 속에서 으레 말하는 종교적인 장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육체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세상이 마음에 대해 현실로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세례를 받음으로써 천국이 하나님보좌에 앉아계신 그 아버지가 내 마음에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성령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향하여 주라고 부르면서도 천국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현실이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 언제나 천국을 죽은 다음으로 미루어놓고 있는 사람, 성령세례 받지 못한 것이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할 때의 주님은, 그 당시로 돌아가면 주인이 있고 주인 밑에 종이나 노예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것이고 종이 된다는 것인데, 종과 노예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로마식민지 하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가 되겠다는 결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존재했던 종교라고 하는 것, 그 종교에 임할 때에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는 종교심리, 다시 말하면 슐라이어막허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말한 절대의존의 감정에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성령에 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神)이 일본에 800만 개의 우상 가운데 하나로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의존의 감정이라든지 종교심리에서부터 나와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를 부르는 그 '주'는 성령세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는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절대의존의 감정이 아니라 각오입니다.
내가 예수를 부르다가 죽게 되는 한이 있어도 그대로 가겠다!
노예가 되는 것이고 황제숭배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있던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왕따가 될 각오를 하고 부르는 예수님의 칭호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모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순교라든지 박해라든지 하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었느냐?
성령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세례를 받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육체세례를 받은 상태에서 삶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로 느끼는 이 세상의 문제들이 두 번째 세 번째 현실로 밀려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세례를 받음으로써 내 마음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천국이 첫 번째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육체세례를 받음으로써 생긴 이 세상의 현실은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는데,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가장 큰 유람선, 크루즈여행을 하는 배를 노르웨이에 있는 어떤 조선소가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굉장해도 그 유람선을 타고 유람할 계획도 나는 없고 그 유람선을 만든 노르웨이 국민도 아니고, 그 유람선을 갖고 있는 플로리다에 있는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 놀랍다! 하고 끝나고 마는 거죠.
차라리 내 아들 손톱 밑의 가시가 하나 박힌 것이 더 큰 현실이지요.
이처럼 성령세례를 받음으로써 천국이 나의 첫 번째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내 자식문제, 내 육체가 죽고 사는 이 문제가 노르웨이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유람선을 건조했다는 정도의 사실로 미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세례 받은 초대교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넘어서고 순교를 넘어서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 핍박 속에서도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며 죽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이 몸이 죽는다는 것은 대단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에 느끼게 해주시는 그 보좌에 앉아계신 아버지하나님, 천군천사가 아버지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 천국이 첫 번째 현실이니까 이 몸이 죽어서 지금 천국에 간다면 마다할 것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이 세상에서 잘살고,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세례의 증거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세례를 받았어도 또 우리는 육체세례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마르틴 루터가 말한 거예요, Daily Baptism.
백 번 천 번 우리는 죄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마르틴루터는 그걸 받아 'Daily Baptism',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날마다 세례를 받는 일이 뭡니까?
진짜로 교회에서 날마다 세례예식을 거행한다는 얘기에요.
한번 세례 받으면 됐어요.
그러나 세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는 물세례, '내가 육체세례를 받은 자로서 육체를 속하여 접하게 되는 이 세상이 나에게 첫 번째 현실로 느껴지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을 등지겠다'는 결심,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 모든 상황에 대해 등지겠다는 그 결심, 이게 물세례이고, 그렇게 물세례를 결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세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천국이 나의 현실로 보이게 되고 나는 하늘을 향해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내 얼굴을 고정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야누스, 내 인격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신 상태에서 이제 내 뒤로 하나님의 섭리의 얼굴을 내미시고, 하나님의 계획의 얼굴을 내미시고 당신께서 내 육체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상황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육체세례 상태를 끝내겠다, 내가 육체와 연결된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결심이 물세례이고, 이렇게 물세례가 어디서 완성이 되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세례 받는 자들에게 세례에 대해서 설교하는 와중에 홍해바다의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왜 홍해바다가 Red Sea이냐? 이집트에서 선민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해 빠져나올 때 이집트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그런데 붉은 바다를 빠져나온다, 주 예수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에게서 떨어지는 피를 볼 수밖에 없다, 그 붉은 피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육체세례의 현실을 끝내게 해준다."라고 어거스틴이 설교를 합니다.
바로 마르틴루터도 그 점에서 Daily Baptism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이 세상과 등지겠다는 결심을 표현합니다.
눈앞에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펼쳐져도 내가 세상에 대해 등지겠다, 등지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만이 아니에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잘못한 것은 그 소돔 성안에 살 때부터 그 소돔성에 대해 등을 돌렸어야 됐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대해 등질 때, 죽었다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느낄 수도 만질 수

도 없던 그 천국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 어떤 현실보다도 우선적인 현실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놀라운 축복, 이 신비한 축복, 이것이 바로 성령세례의 의미요, 우리가 자식 걱정으로 자식 충만하고 사업 걱정으로 사업 충만하듯이 천국에 계신 아버지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천국과 하늘아버지가 내 마음에 가득가득 생각나고 그리워지고 만나지고 충만한 상태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살아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육체세례와 성령세례 사이에서 나의 인격적 결단을 요구하는 물세례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성령세례 받은 자로써 그 의미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천국이 날마다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